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5년 8월 29일(금)

(윤력 7월 7일)

Пятница

29 августа 2025 г.

№ 34 (12151)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9월 1일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지식의 날로 기념한다.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존경하는 사할린과 쿠릴열도 주민 여러분!

9월 1일 새 학기의 시작과 지식의 날을 축하합니다!
학창시절, 대학시절은 책임을 감당하는 대단히 중요
한 시기입니다.

이는 각 개인과 학창 세대 전체가 미래 성과의 기초를
쌓는 시기이자, 국가 전체의 미래가 형성되어가는 시기이
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
개발에 나서며, 사할린 지역의 어린 학생들을 위한 향상된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날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새로운 2개 학교가 처
음 학생들을 맞이할 겁니다.

한 학교는 주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학교로서 '야방가
르드' 주택단지 안에 설립되었습니다. 다른 학교는 도심
남부에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학생들이 세계를 알아가고, 성장하며,
전문성의 필요한 분야를 획득하도록 그들의 열망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윈토리움(양자역학교실)'과 '토츠카 로스타(성장
점)'를 건설하고, 사할린의 대학들에 교육비를 지원하며,
세계적 수준의 사할린테크 캠퍼스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날을 맞아 학교 학생들과 대학생들이 스스로
위대한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길 기
원합니다.

학생 여러분, 배우십시오! 탐구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꿈꾸길 두려워 마십시오!

또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
립니다! 여러분은 학생들을 바른 길로 지도하시며, 영감
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들에게 정신과 지식을 넣어주고 계
십니다. 학부모님들에게는 자녀들을 향한 인내와 자녀와
의 상호이해를 기원하고,

학생 여러분에게 새 학기 내내 좋은 성적과 획기적 성
과와 찬란한 날들이 찾아오길 기원하며, 지식의 날을 축
하합니다!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사할린 주지사,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샤흐초르스크시 방문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가
특수군사작전 지역으로서 사할린주가
담고 있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샤흐
초르스크시를 공식 방문했다.

주지사는 특수군사작전 지역에서
복무 중인 사할린 출신 장병들의 성공
적인 임무 성취에 훈장과 감사장을 수
여하며 "여러분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얼마 전 우리는 80년 전 사할린 남부와
쿠릴열도의 해방을 위해 싸웠던 참전장
병들을 기리고, 쿠릴 상륙 작전의 영웅
들을 추모하기 위해 숲속 섬에 야외 역
사기념 단지를 공식 개장했습니다. 또
한, 제2차 세계대전과 특수군사작전을
나란히 비교해보며, 전투에 임하고 있
는 여러분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조상의 공적의 계승자로서 조국의
이익을 옹호하고, 국경을 수호하며, 가
장 중요한 국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
리는 여러분을 믿으며, 승리하길 기원
합니다."라고 말했다.

사할린의 지원으로 전과 같이 군인
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으로 이동하고,
부상자를 이송하며, 탄약을 운반하는 데
필요한 4륜구동 오토바이 제공을 비롯해
추가로 전자전 배낭, 배터리, 드론, 전기
톱, 지혈 봉대를 장병들에게 전달했다.

앞서 '참여' 기획의 일환으로 약 700
개의 개인 소포를 담은 65m³ 규모의 구
호물품이 최전선에 전달되었다. 이는
올해만 해도 사할린 지역이 이 지역 장
병들에게 수십 차례 전달한 유용한 구
호물품 중 하나였다. 이전에도 사할린
주정부는 무인항공기와 부품, 적의 무
인기 방어 장비, 전선에서 필요한 장비

와 기계 등을 전달한 바 있다. 러시아 연
방 국방부는 2023년 군 지원에 따른 결
과를 바탕으로 사할린주가 군 병력 지
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사할린
주에 국방부와와의 협력에 대한 공로상
을 수여했다.

주지사는 방문 둘째 날 사할린주가
지원하여 복구 및 보수공사가 한창 중
인 사회복지시설의 현장을 시찰했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제니스 푸실린
수장은 "우크라이나 측은 오랫동안 우
리 지역을 방치 했으나 사할린주의 지
원으로 주택, 병원, 유치원, 학교를 복구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샤흐초
르스크시의 제3 유치원 '올로츠카', 아
동사회복지센터, 제18호 및 제19호 학
교 등을 방문해 보수공사와 재정비작업
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현지 교육기
관의 지도부는 "난방과 시설이 크게 개
선되어 아이들과 교사들이 쾌적한 환경
에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만족감을 표했고, 지역19호 학교 류드
밀라 흐루쇼와 교장은 올해 학교가 전
지방자치지역들 중 가장 많은 신입생들
이 입학한다고 전하며 "사할린주의 지
원으로 3년 연속 우리 학교 부지에 대
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대적으
로 경기장을 보수공사하고, 아동을 위
한 운동장을 건설하며, 지붕을 교체하
고, 입구와 주방을 새롭게 단장했다. 올
해는 학교 외관도 새로이 단장해 모든
게 제때에 완비되었다. 이제는 선생님
과 아이들이 설렘으로 새 학기를 기다
리고 있다."고 말했다.

단신

네벨스크 지역, 태풍 피해 복구 작업 중

8월 27일 밤 사할린을 강타한 강력한
태풍으로 인해 네벨스크 지역 콜호즈노예
마을의 카자츠카 강이 범람했다. 몇 시간
만에 수위가 몇 미터 이상 올라 산비탈에서
물이 밀려와 최고 수위는 2.47m를 기록했
다. 이 지역에서 지자체 차원의 비상사태가
선포되어 주정부와 비상사태부는 태풍 피
해복구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주재한 비상
대책본부 회의에서 네벨스크 지역 알렉세
이 샤벨니크 시장은 "현재 130채의 주택이
침수됐다."며 "마을에서 21명(어린이 5명
포함)이 대피했고, 임시 대피시설에는 11
명이 머물고 있으며, 나머지는 친척 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
사는 관계 부처 전문가들과 함께 8월 28일
(목) 콜호즈노예 마을 현장을 찾아 피해 주
민지원 및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해결책
을 지시했다.

'토박이'다큐멘터리, 9월 13일 재상영

8월 12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옥차브
리'영화관에서 처음으로 상영된 '토박이' 장
편 다큐멘터리(감독: 도카 안톤, 프로듀서:
하 세르게이)가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은
가운데 많은 사할린 동포들이 영화 재상영
의 필요를 언급했다. 한 번 더 '토박이'를 상
영해달라는 요청을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
인회(회장 림중환), '사할린한인'유즈노사
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천영근), 사할린주
두마 임 유리 의원이 사할린주문화부에 보
냈다고 알려졌다. 또한 '고스우슬루기'정부
서비스사이트를 통해서도 개인적인 요청이
들어온 가운데 9월 13일 정오 12시 '옥차브
리'영화관에서 무료 재상영이 된다는 소식
에 지난 27일(수) '옥차브리'영화관에서 관
람표(1인당 4장 미만)를 배부하여 5시간 만
에 522석 모두가 매진되었다.

또한 9월 7일 정오 12시 코르사코브 시
'오케안'문화회관에서 시민들을 위한 '토박
이' 다큐멘터리 무료 상영이 있다는 소식을
영화 제작진이 전했다.

2025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5년 하반
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수 있다는 것
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
지를 계속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반기 1개월 구독료는 115,49 루
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И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제4회 '라면'축제 개최, 세대가 어우러지는 자리가 되어

지난 23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알레야'쇼핑센터 앞마당에서 사할린한인연합회(회장 고영순)가 주최하는 제4회 <라면>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라면'축제를 주최한 사할린한인연합회 유영희 부회장이 환영사를 전하며 한민족 문화를 소개하는 '라면'축제가 더욱 발전하여 모든 시민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길 기원했다.

블라디보스톡 대한민국총영사관 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 국장현 신임 소장은 "라면은 단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따뜻한 추억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라면은 세대를 아우르고,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는 특별한 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축제는 이 라면을 중심으로 사할린 한인동포사회가 하나되고, 세대가 어우러지는 소중한 자리라 생각한다."며 "특히 사할린동포사회는 지난 세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보듬고, 한국인의 정체성과 문화를 지켜온 자랑스러운 공동체"라며 축하했다.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 학생들의 북공연으로 막을 연 축제 프로그램은 다양했다.

공연을 이어준 네헬스크 어린이음악학교의 바이올린 앙상블(지휘자 빅토리아 유흐마노와)은 빗속에서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를 비롯해 총 4개 클래식 및 현대음악 작품을 선사해 관객들의 환호를 받았다. '에트노스'학교 무용단들의 전통무용 및 현대 댄스 공연, 신나는 케이팝 춤을 추는 'EFENTY'팀의 무대, 매해 축제에 참가한 '아크 엘레크트' 키르기즈 무용단 등 출연이 명절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올림픽'태권도 클럽의 시범공연도 큰 볼거리를 주었다.

<매운 라면 빨리 먹기>, <쌀 포대기 들어올리기> 등 즐거운 대회들이 응원과 웃음소리를 자아내며, 강팔용 동포가수의 독창과 노래에 흥을 주체 못하는 즐거운 출판과 이를 바라보는 관객들도 축제를 즐겼다. 백 알리사와 김 세르게이 진행자의 재치는 축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모든 관객들이 시식 할수 있도록 사할린한인연합회의 여성들의 노고가 가장 컸다. 이날 라면 외에 파전 등도 시식할 수 있



었고, 한식 반찬 판매도 잘 이루어졌다.

주최 측에 따르면 시식을 위해 이번 축제에서 기록적으로 라면 1450인분 이상을 나눴다고 전해지며, 배분된 1인분의 양도 적당했다.

그리고 관객 중 사할린한인동포 1, 2, 3, 4 세 등 모든 세대가 많이 참석한 점이 눈에 띄었다. 정말 모든 세대가 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그리고 동포들만 아니라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모여 이들은 이날 사할린의 다민족의 문화를 즐기며, 라면에 대한 애정을 표명했다. 물론 한민족문화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축제 시작에 비가 와서 좀 방해됐지만 관객들은 행사장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축제를 즐겨 주최 측으로서도 만족했다.

(취재: 배순신, 이예식)



이 모 저 모 약 60년 전 사할린에서 연구가가 녹음한 북방소수민족 원주민의 독특한 노래 디지털화

사할린과 캄차트카에서 탐사 중에 수집된 아이누족, 니프크인, 오로크인, 조선인의 노래들이 러시아 역사기록원에 등재되었다고 북극 국립문화.예술연구소가 전했다.

북극 국립문화.예술연구소는 1966년 사할린과 캄차트카에서 음악-문화인류학 탐사를 주제로 한 디지털 자료를 지적 재산권에 등록했다.

그 자료에는 당시 대학생으로서 훗날 민족음악가가 된 유리 셰이킨이 녹음한 민족들의 독특한 소리를 녹음한 것이 포함돼있다.

당시 탐사가 이사야크 브로드스키의 지도 아래 진행된 가운데 탐사대에 셰이킨, 우경일, 미하일 스트레칼롭스키가 참가했다. 오랫동안 이 녹음들은 분실된 것으로 간주됐지만 지금은 이 자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디지털 역사기록의 일부가 되었다.

수집된 노래 속에는 사할린과 캄차트카 지역의 아이누족, 니프크인, 오로크인, 나나이족, 고려인의 악기 연주와 노래가 담겨있는데 그중 사할린 아이누족의 마지막 대표자인 나쿠 오오만노의 독특한 소리가 녹음돼 있다.

탐사 경로는 유즈노사할린스크, 돌린스크, 포로나이스크 등 사할린주의 여러 마을들에서 녹음이 이뤄졌다. 소리 녹음 자료에는 아이누족이 고크에게 제사하는 노래, 샤머니즘 음악, 아이누족 북소리, 니프크인의 북소리, 툰린 해금 음악이 담겨있고, 러시아와 한국의 민요들도 역사기록물로 등재돼 있다.

최근 이 연구소는 셰이킨 교수의 유산을 높이 평가하여 야쿠치아 국립박물관과 공동으로 디지털 소리녹음 기록물을 구축해왔다. 이미 북방소수민족들의 전통악기와 음향기기의 소리를 녹음한 자료들이 등록되어 있는 가운데 야쿠츠크에서 셰이킨 수집품 박물관이 개관되었다. 유리 셰이킨 교수는 50년 넘게 민족음악학에 헌신해왔으며, 그는 1966년부터 시베리아와 극동지역들에서 100회가 넘는 탐사를 진행했고, 그의 이러

한 연구는 사할린과 전 극동지역 주민들의 음악적 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토대가 되었다.

Ученые оцифровали уникальные песни КМНС, записанные на Сахалине почти 60 лет назад

В архив вошли песни айнов, нивхов, орочей и корейцев, собранные во время экспедиции на Сахалин и Камчатку, сообщает Арктиче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нститут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 Аркт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л в Роспатенте цифровую базу данных, посвященную музыкально-этнографической экспедиции 1966 года на Сахалин и Камчатку. В ее составе — редкие аудиозаписи, сделанные будущим этномузыковедом Юрием Шейкиным, тогда еще студентом. Экспедиция проходила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композитора Исаака Бродского. В ней участвовали Шейкин, У Ген-Ир и Михаил Стрекаловских. Долгое время считалось, что записи утеряны. Теперь они стали частью доступного цифрового архива. В коллекцию вошли песни и инструментальные наигрыши народов Сахалина и Камчатки: айнов, нивхов, орочей, нанайцев и корейцев. Среди них — уникальная запись последней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ицы сахалинских айнов Наку Оманно. Экспедиционный маршрут прошел через Южно-Сахалинск, Долинск, Поронайск и другие населенные пункты области. Аудиоматериалы включают медвежьи обрядовые песни айнов, шаманские наигрыши, музыку на айномском бубне катэ, нивхском бубне кас и однострунной люте тынрын. В архиве есть и русские, и корейские народные песни.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институт оцифровывает наследие профессора Шейкина и создает электронный фонограмм-архив совместно с Национальной библиотекой Якутии. Уж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ы базы данных по традиционным инструментам и звуковым орудиям северных народов, а в Якутске открыт музей коллекции Шейкина. Юрий Шейкин посвятил этномузыкологии более полувека. С 1966 года он провел свыше ста экспедиций в регионах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обрал сотни инструментов и фонозаписей. Е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стали основой для сохранения музыкального наследия народов Сахалина и все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코르사코브, <행간의 세계> 첫 독서축제 개최

코르사코브에서 처음으로 독서축제 <행간의 세계>가 개최되었다.

수백 명의 코르사코브의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대규모 책

과 음악, 문화의 축제에 참여했다. 이 축제를 사할린주 교육부 아나스타시야 키크테와 장관이 주도한 가운데 교육부 장관으로서 저는 도서축제가 교육과 문화와 예술이 형식에 매이지 않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 하나로 어우러지기를 원했고, 우리가 우수한 문학작품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랐다. 이 도서관축제는 새 학기를 위한 선하고, 감동을 주는 출발점이 될거라 확신한다."고 아나스타시야 키크테와가 말했다.

방문객들을 위해서는 동화 연극과 과학적 탐구, 스포츠와 민속악기 활동교실이 열렸고, 작가와 시인들을 비롯해 특수군 사작전의 참가자들과의 만남도 진행되었다.

이 행사의 절정은 티그란 아흐나자랴니 지휘하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공연으로 이어져 야외 행사장에서는 차이콥스키와 두나옴스키의 작품들이 울려 퍼졌다.

В Корсакове прошёл первый библиофест "Мир между строк"

В Корсакове впервые прошёл библиофест "Мир между строк". Сотни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города стали участниками большого праздника книги, музыки и культуры, сообщили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района.

Инициатором фестиваля выступила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 Мне как министру образования очень хотелось, чтобы на этом фестивале чтения - который объединяет образование, культуру и искусство - в неформальной и тёплой обстановке мы вспомнили лучшие образцы литературы... Уверена, что этот праздник станет добрым и вдохновляющим стартом нового учебного года! - отметила она.

Гостей ждали сказочные постановки, научные квесты,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спорту и народным инструментам, а также встречи с писателями и поэтами, включая участников СВО.

Кульминацией вечера стало выступлени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симфонического оркестра под управлением Тиграна Ахназаряна. Под открытым небом прозвучали произведения Чайковского и Дунаевского.

동방경제포럼 기념으로 기념 동전 발행

러시아 중앙은행이 3루블리 상당의 은화를 발행했다.

8월 25일 동방경제포럼 10주년을 맞아 3천 개의 특별 은화가 발행된 가운데 은화 문양은 레이저 기술로 새겨졌다.

(8면에 계속)

<아리아리 춤길>다큐멘터리 제작진, 사할린 촬영

지난 25일(월) <아리아리 춤길>다큐멘터리 촬영으로 김도희·김지운 감독, 김태희 조연출가, 다큐멘터리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재일조선인 김묘수 무용가가 사할린에 도착했다.

사할린에 있는 동안 이들은 사할린한인문화센터, 새고려신문사 등에서 촬영 작업을 했다. 사할린한인문화센터 소속 '아리랑'무용단과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 학생들을 위한 김묘수 무용수가 지도하는 수업과정도 촬영하고, 코르사코브 한인회 동포어르신들과의 인터뷰도 했고, 김묘수 무용수는 이번에 코르사코브 방향의 언덕, 미주호 학살 27인 한인 피살자 추모비 현장에서 위령춤을 공연한다.

촬영팀은 비코브 탄광, 크라스노고르스크 마을, 유즈노사할린스크 공동묘지 찾을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제작진과 출연자가 26일(화) 새고려신문사를 방문할 때 밝혀졌다. 이날 제작진은 새고려신문의 역사와 역할도 알아보며, 사할린동포에 관한 여러 질문도 하고, 이번 다큐멘터리 제작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중국, 카자흐스탄, 러시아를 처음 방문한 김묘수 무용수의 방문 소감도 들었다. 김 무용수는 재일조선인 3세로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국적은 대한민국(한국), 조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 어느 곳에서도 속하지 못하는 정체성을 춤과 강연으로 풀어내고 있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 한반도 분단 속에서 동북아시아로 흩어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일조선인·조선족·고려인 등 그들은 '경계인'으로 살아가며 항상 정체성과 뿌리를 찾는 질문을 반복합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아리아리 춤길>은 재일조선인 3세 무용가 김묘수(39세, 2005년부터 후쿠오카조선가무단 무용수로 활동, 2023년에 퇴단 전에 10년간 이 가무단 단장을 맡았음. 현재 개인무용가) 씨를 중심으로 중국·러시아·카자흐스탄의 코리안 디아스포라 여성 무용가들이 프로젝트 무용단 '아리아리 춤길'을 결성해 식민과 분단의 트라우마를 춤으로 치유하고 '평화의 공존'을 향한 길을 열어나가는 도전과 연대의 몸짓을 기록합니다."라고 제작진이 기획다큐멘터리의 취지를 소개했다.

한국 부산 출신인 감독 김도희·김지운 씨는

함박마을,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로 하나 되다

지난 2025년 8월 23일(토) 오후 3시, 인천 함박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는 따뜻한 감동이 가득한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주관하고 교육사회적협동조합 디아스포라연구소가 주최하여,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되었다.

대회에는 초등부, 중·고등부, 성인부 총 32명의 참가자가 무대에 올라 각자의 이야기를 두 가지 언어로 들려주었다. 참가자들은 가족 이야기, 고향의 추억, 미래의 꿈을 진솔하게 표현하며 청중들과 소통했다. 발표가 끝날 때마다 강당은 큰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차, 모두가 하나 되는 따뜻한 시간



이미 재일조선인에 대한 다큐멘터리 촬영을 한 경험이 있고, 여러 차례 사할린을 다녀간 김지운 감독은 사할린동포에 관한 다큐멘터리도 제작한 바 있다.

현재 '아리아리 춤길'다큐멘터리로 이들은 이미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에서 촬영을 마쳤고, 사할린에 오기 전에는 블라디보스토크와 우수리이스크에서 작업을 하였다.

제작진은 "'아리아리'는 통일운동가이자 사상이었던 고 백기완 선생님이 '화이트'이란 낱말 대신 쓰자고 강조하신 순우리말로 '역경을 돌파하여 새로운 길을 스스로 열어 나간다'라는 뜻입니다."라며 영화 제목인 '아리아리'라는 낱말의 뜻을 설명했다.

다큐멘터리 개봉은 2026년 11월에 예정되어 있고, 2026년 2월에는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러시아 동포무용가들이 일본 탐방을 하고 이후에 작품을 만들어서 2026년 8월 즈음에 일본과 한국에서 공연을 할 예정이다.

촬영팀은 9월 1일(월) 사할린을 떠난다.

(배순신 기자)

러시아 농업부 장관, 사할린주 방문

8월 27일(수) 러시아 연방 농업부 옥사나 루트 장관이 사할린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와 만남을 가진 가운데 사할린주 농산물 기업과 수산업단지를 시찰했다.

옥사나 루트 장관은 사할린주가 채소와 유제품을 비롯해 기초식품의 자급자족률이 높다고 지적한 가운데 2025년 상반기 사할린주의 농업 생산량은 4.1% 증가했다.

장관은 상품의 구성요소 확대를 논의하며,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기후를 고려한 농작물의 품종을 확대 및 개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길 권하고, 온실재배 채소 품종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그린 아그로' 대규모 낙농장과 코르사코브의 '키로브 수산업 콜호즈'를 방문했다. 사할린은 조업 어획량 및 생선가공 생산량에 있어 전국 상위 3위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

해에는 77만 톤의 해양생물이 채취되었으며, 올 초부터는 48만 톤 정도를 채취하고 있다. '키로브 수산업 콜호즈'에서는 현대적인 수산물가공단지가 하루에 350톤의 수산물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있다.

옥사나 루트 장관은 현장을 시찰하고 생선의 잔류물 없는 새로운 자동화 공장 건설을 소개받았다.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사할린 지역에 해수양식업 개발과 가두리양식업 투자 문제, 작물 생산개발에 대해 러시아 연방 농업부와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농촌 지역 종합개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코르사코브의 오조르스코예 마을의 도로 건설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농업 분야 우수 근로자에게 게 부처 및 지역 표창장을 수여했다.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사할린 아동예술단 공연

여름의 끝자락에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은 <스파스카야 바슈냐 제짬(아이들을 위한 스파스카야 탑)> 아동 관악오케스트라의 음악축제의 장으로 바뀌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중앙 아동음악 학교 학생들을 기반으로 한 사할린주 아동 관악오케스트라 <브라보>(지휘자 박 다니일)와 '에트노스' 아동예술 학교 합동 한민족 타악기 앙상블(지도인 율리아)이 <아동을 위한 스파스카야 탑> 아동 관악오케스트라 축제에서 사할린주를 대표해 연주를 선보였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연주는 방해를 받지 않았다.

박 다니일 '브라보' 관악오케스트라 지휘자는 "모든 연주자들의 인내심과 전문성, 감직함이 자랑스럽다! 지난 3년간 우리는 '붉은 광장'에서 공연하는 꿈을 향해 달려왔다. 우리의 대규모 오케스트라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문화관광관리국 산하 학습창작실습실이다. 여름 내내 '알라이드'창작 교육과정 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연습을 해왔다. 아이들은 자신의 크든 작든 조국을 자랑스러워하고, 조국의 위대함과 번영을 보고싶어 한다.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하라!"고 말했다.

사할린 공연 프로그램은 풍부하고, 다채로운 가운데 관악오케스트라의 고전음악과 극동 민족 전통의 요소들로 조화롭게 어우러진 것이 그 특징이었다.

연주 곡목 중에는 알렉산드라 파흐무토와 작곡가의 유명한 노래로 러시아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담긴 <풍요로움의 힘



>, 얀 프렌켈의 따듯하고, 진정성 어린 <사할린에 대해 뭐라 말할까> 곡이 연주되었고, 신 율리아 선생의 지도로 한국 북의 경쾌한 리듬과 태평소의 서정적 연주의 <북의 거리>는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갈채를 받았다.

순간 사할린과 모스크바 간의 거리는 사라지고, 모든 관람객들은 거대한 음악가족의 일부가 된 듯했다. 모스크바의 주민 미하일 마트웨옌코는 "확연하게 눈에 띄는 것은 학생들이 단순히 곡목을 따라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도에 표시된 지역으로서가 아닌 그들의 예술적 자기표현과 땀 수 없을 만큼 진밀한 자신의 지역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할린 공연 대표단은 중앙아동음악학교, '에트노스' 아동예술학교, 1호 아동예술학교, 아니와, 돌린스크, 포로나이스, 스타로둡스코예 마을의 아동예술학교들의 학생과 교사들, 유즈노사할린스크 심포니오케스트라와 사할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자들로 구성되었다.

(주정부 자료에서)

와 밀접한 연락을 갖기도 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4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東亞日報(1923. 4. 19)
- 露領 니콜리스크 附近의 排日 鮮人の 行動에 關한 件(1918. 8. 28), 圖們江對岸 露領情況彙報(1918. 9. 4), 時局에 對한 在外 不良鮮人の 情況 續報(1918. 10. 4)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在西比利亞(7)
- 露領에 있어서 不逞鮮人團 武裝解除의 真相(1923. 1. 12), 露支領 不逞鮮人の 義兵隊編成에 關한 件(1923. 2. 24), 鮮人 武裝團의 朝鮮 國境 侵犯計劃 및 鮮人 軍隊編成에 關한 件(1923. 4. 2), 新韓村 一般狀況에 關한 件(1923. 7. 2), 러시아

側の 日露問題에 關한 共產黨 및 鮮人共產黨 取締에 關한 件(1923. 7. 17)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在西比利亞(14)

· 在露 反日鮮人團體 機密文書の 送付에 關한 件(1923. 7. 5)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鮮人と 過激派(4)

· 獨立運動史料 러시아編(국가보훈처) 제5권 357~358면

· 韓國獨立運動史資料(國史編纂委員會, 1977) 35 러시아篇 ii 43~44면

· 초기사회주의자들의 군사활동-고려혁명군을 중심으로(임경석, 국사관논총 제75호, 1997) 36~64면 묘수 미하인

(편집 이철수)

광복 80주년 맞아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러시아지역 독립유공자

현재 한국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는 노령계열 175명이며 그중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독립유공자 137명이다.

고명수

관리번호 75107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입니다.			
성명	고명수	한자	高明秀
이명	高明秀	성별	남
생년월일	(1882)	사망년월일	미상
본적	함해도 황주		

공훈록

1918~1923년 러시아에서 니항군대 부관, 고려혁명군 중대장, 고려공산당 혁명중앙부 군사부 산하 특

립군대 제1연대장, 공산청년회 재무부장 등으로 활동하였다.

1918년 8월 러시아 니콜리스크에서 이흥삼(李興三) 등과 함께 독일의 후원으로 러시아 극동에 파병된 일본군을 격퇴할 계획을 세우고 동지 규합과 군사금 모집을 계획하였다.

1919년 10월 독립군 부대에 입대한 후 1921년 니항군대(泥港軍隊) 부관(副官)으로 극동공화국 아무르주 스보보드니(알렉세예프스크, 일명 自由市)에 도착하여 고려혁명군 제2중대 중대장이 되었다. 1922년

10월 베르흐네우진스크에서 개최된 고려공산당 통합대회에 우르간의 한인분대 소속으로 참석하였다.

1923년 1월 고려혁명군 본부의 명령으로 무장해제를 당한 이후 소집된 지방대회에 고려혁명당 선전부장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같은 해 3월 러시아 적군(赤軍)으로 편입할 목적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고려공산당 혁명중앙부 군사부 산하의 독립군대(特立軍隊)가 편성되자 독립군대 제1연대장이 되었다. 6월에는 공산청년회(共產青年會) 재무부장으로 고려공산당 간부 및 민회(民會)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К 80-летию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исьма с Сахалина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четвертое письмо с комментариями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Письма с Сахалина: забытый голос предков».

Сотрудникам посо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Здравствуйтесь!

Я — Пак Хён Джу (朴亨柱 박형주), кореец, который живёт на Сахалине с 1944 года, когда здесь был японский колониальный период. Моя родина — Чолла-намдо (1), Посон-ып (2), Усан-ри (3). Я жду возвращения домой уже 28 лет с тех пор, как моя страна освободилась.

В 1959 году (4) казалось, что надежды на возвращение домой потеряны навсегда. В то время в моей стране шла межкорейская война (5), а внутренняя и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были напряжёнными. Поэтому интерес к корейцам, живущим на Сахалине, был очень слабым.

Экономическая ситуация была тяжёлой, и бедные корейцы, жившие на Сахалине, не знали, куда податься. Одни выбрали советское гражданство (6),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е гражданство (7), а некоторые смелые остались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8). Я, как кореец, выбрал подданство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Это было решение без обязательств.

С тех пор я дважды был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9) и останавливался в Пхеньяне (10), центре политики, экономики и идеологии. Я также посетил различные районы, поэтому я хорошо понимаю уровень развития страны.

Однако я ничего не знаю о своей родине, Южной Корее — ни об уровне её развития, ни о знаменитых местах и исторических памятниках.

Я с большим желанием слушаю радиопередачи для наш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на Сахалине и узнал о движении «Новая деревня» (새마을운동) (11), которое происходит на нашей родине. Сможем ли мы когда-нибудь вернуться домой?

Мне хотелось бы узнать больше о темпах развития моей родной стран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12).

Говорят, что лучше один раз увидеть, чем сто раз услышать, но в нынешних условиях, когда невозможно посетить родину, необходимы материалы, которые знакомят нас с ней.

Когда бы вы не получили это письмо, я был бы очень признателен, если бы вы прислали альбом или фотографии известных исторических мест.

Если бы вы прислали фотографии Сеула (13), туристических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ей, университетов и перспективные планы на будущее моего родного Чолла-Намдо, а также панораму моего родного города Посон, это оказало бы большую помощь для корейцев, живущих здесь.

Пожалуйста, сделайте всё возможное для возвращения на родину.

Желаю всем сотрудникам удачи!

25 марта 1973 г.

Сахалин, г. Чехов, Советская, 15
Пак Хён Джу (박형주)
Перевод Ин Му Хак

Комментарии:

(1) В эпоху династии Чосон, основанной в 1392 г.,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е деление Кореи было реформировано и унифицировано. Территория страны была разделена на восемь крупных провинций (до), что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как система «Пальдо» (Восемь провинций) — Чхунчхондо, Канвондо, Кёнгидо, Кёнсандо, Хамгёндо, Хванхэдо, Чолладо, Пхёнандо. Границы провинций в общем совпадали с географическими и диалектическими регионами Кореи. Провинции, в свою очередь, делились на более мелкие единицы: уезды (кун) и округа (хён). Столичный регион Ханян (современный Сеул) управлялся отдельно, как особая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ая единица. Данная система оставалась относительно неизменной на протяжении нескольких столетий. Модернизационные

процессы конца XIX в. привели к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й реформе 1896 г., в результате которой восемь провинций стали тринадцатью (пять провинций — Чхунчхондо, Кёнсандо, Чолладо, Хамгёндо и Пхёнандо — были разделены на северную и южную части). Это новое деление формально сохранилось и после провозглашения Корейской империи в 1897 г., и после аннексии Кореи Японией в 1910 г., в течение всего периода японского колониального правления, вплоть до освобождения страны в 1945 г. В 1945 г.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был разделен по 38-й параллели: три провинции Хванхэдо, Кёнгидо, и Канвондо были разделены между Северной и Южной Кореей, к Северной отошли провинции Северная и Южная Пхёнандо, Северная и Южная Хамгёндо, к Южной — Северная и Южная Кёнсандо, Северная и Южная Чолладо, Северная и Южная Чхунчхондо. Именно по происхождению из той или иной провинции, корейцы определяют свою идентичность.

(2) Ып (읍) — уездный город, один из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территориальных единиц уезда (кун) и некоторых городов (си) с населением менее 500 000 жителей наряду с волостью. Население ып — не менее 20 000 человек. Ри (리) — деревня, самый мелкий в Корею населенный пункт,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территориальное подразделение уездных городов и волостей.

(3) Посон-ып, Усан-ри — уездный город Посон (в составе которого находится Усан-ри) и до сих пор входит в район Посон (Посон-гун) провинции Южная Чолладо. Население Посон-ып сейчас составляет около 9 тыс. человек.

(4) Непонятно, почему автор выбрал 1959 г. как год «потерянной надежды». Скорее всего, он имел в виду, что именно в 1959 г. он отчаялся вернуться на родину и принял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е гражданство.

(5) Корейская война — военный конфликт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активная фаза которого шла в 1950–1953 гг. Корейская война была первым крупным вооружённым конфликтом периода «Холодной войны», столкновением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силы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и капиталистического блоков.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й причиной стало вторжение войск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КНДР) на территорию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25 июня 1950 г. В конфликт быстро оказались втянуты международные силы: Организация Объединённых Наций (ООН), в основном представленная войсками США, выступила на стороне Юга, в то время как Северу активно помогали СССР (воздушную и материально-техническую поддержку) и Китай (пославший массовые силы так называемых «китайских добровольцев»). Боевые действия характеризовались чрезвычайной ожесточённостью, манёвренной войной с быстрыми изменениями линии фронта и огромными человеческими жертвами среди военных и граждан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Война завершилась подписанием Соглашения о перемирии 27 июля 1953 г., которое закрепило разделение полуострова по 38-й параллели, где была создана демилитаризованная зона (ДМЗ). Мирный договор так и не был подписан, технически война не окончена, а КНДР и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до сих пор существуют в состоянии перемирия. Именно из-за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СССР отказался от плана репатри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 родину.

(6) Советское гражданство — официально до 1945 г., а формально до 1952 г. — корейцы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были гражданами Японии. В 1952 г., после подписания Японией Сан-Францисского мирного договора 1951 г., япон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ыпускает циркуляр о лишении всех корейцев японского гражданства. 6 мая 1952

г. Совет Министров СССР принял постановление № 2188-823сс о том, что Президиум ВС РСФСР должен рассматривать ходатайства корейцев и других жителей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о приеме их в гражданство СССР. С этого времени корейц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огли получить советское гражданство по упрощенной процедуре.

(7)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е гражданство — 5 февраля 1958 г. в городе Находка было открыто первое в России Генеральное консульство КНДР. Сотрудники консульства имели возможность общаться и проводить политику по отношению к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цам, в том числе выдавали всем этническим корейцам гражданство КНДР.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е гражданств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могли получить без бюрократических проволочек.

(8) Вид на жительство лица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 документ, который стал выдаваться советскими органами власти в 1945 г. гражданам лицам (японцам, корейцам, айнам, русским)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которые на момент августа 1945 г. проживали под японским управлением. Позже люди, оставшиеся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по заявлению получали советское гражданство. Категория «БГ» (лица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применялась по отношению к корейцам по факту рождения вплоть до 1979 г., когда новый зако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СССР распространил получение советского гражданства на тех людей, которые родились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ССР и не претендуют на получение гражданства иностран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9)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была единственным корейским государством, с которым СССР имел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могли посещать эту страну в результате краткосрочных визитов, как правило, культурных или туристических. Часть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о косвенным свидетельствам, около 5 тыс. человек) переехали в КНДР на постоянн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10) Пхеньян — столица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КНДР) и её крупнейший политически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и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Расположенный на берегах реки Тэдонган, город имеет древнюю историю, являясь столицей нескольких корейских государств в прошлом. После разрушений в годы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1950–1953 гг. Пхеньян был практически полностью восстановлен по единому плану и превращён в образцовый город с монументальной архитектурой, широкими проспектами и многочисленными памятниками, посвящёнными идеям чучхе и сонгун, а также правящей династии Кимов. Здесь сосредоточены ключевые орган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включая Верховное народное собрание, а также основные культурные учреждения, такие как Большой театр и Музей корейской революции.

(11) Движение «Новая деревня» или Движение за новую деревню (새마을운동, 1970–1980 гг.) — это масштабна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реализованная в Южной Корее в 1970-х гг. с целью модернизаци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преодоления бедности после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Его главной философией стали принципы самопомощи, усердного труда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ласти стимулировали инициативу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предоставляя деревням ресурсы, такие как цемент и сталь, только после того, как община сама демонстрировала готовность к работе. Это привело к кардинальным изменениям: была улучшена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строились дороги, мосты и системы водоснабжения), внедрены новые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е методы для повышения доходов фермеров, а также произошли



значительные позитивные сдвиги в общественном сознании в духе самостоятельности и кооперации. Движение считается одним из главных факторов быстрой индустриализации 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оста Южной Кореи, известного как «Экономическое чудо на реке Ханган». Оно значительно улучшило условия жизни в сельской местности и сократило разрыв в доходах между городом и деревней. Его опыт был рекомендован многим развивающимся странам как успешная модель развития. Однако, наряду с признанием заслуг, движение также критикуют за авторитарные методы реализации и использование в пропагандистских целях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Пак Чон Хи.

(12) В этот период с 1960-х по 1990-е гг. в Южной Корее происходил феноменальный и стремительны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рост, превративший её за неполные четыре десятилетия из б.едной, разрушенной войной аграрной страны в одну из самых развитых постиндустриальных экономик мира. Основой этого чуда стала стратегия экспортно-ориентированной индустриализации, инициированная авторитарны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Пак Чон Хи, которое в тесн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крупными частными конгломератами (чеболями), такими как Хёнде, Самсунг и Элджи, определяло ключевые отрасли для развития и предоставляло им масштабную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поддержку в обмен на выполнение жестких планов по выходу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е рынки. Важнейшими факторами успеха стали невероятная трудовая дисциплина и самопожертвов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массовые инвестиции в образование и подготовку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кадров, а также проведение аграрной реформы.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Южная Корея смогла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пройти путь от производства дешёвой лёг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текстиля к тяжёлой и хим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а затем стать мировым лидером в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х секторах, включая автомобильно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удостроение, электронику и полупроводники, что в итоге привело к созданию процветающего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с одним из самых высоких уровней жизни в Аз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из-за существовавшего ограничения на обмен информацией узнали об успехах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ы только в начале 1990-х гг.

(13) Сеул — столиц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рупнейший мегаполис, политически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и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страны. Сеул демонстрирует уникальное сочетание древней истории и ультрасовреме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Его история насчитывает более двух тысяч лет, однако статус столицы он приобрёл в 1394 г., когда основатель династии Чосон Тхэджо перенёс сюда свою резиденцию, дав городу имя Ханян и построив дворец Кёнбоккун, что озаменовало начало его эпохи как центра корейск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и. В XX в. город пережил тяжелейшие испытания: японскую оккупацию, разрушения в ходе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после которой он оказался в руинах, но затем стал главным локомотив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чуда на реке Ханган», символизируя своим стремительным восстановлением и модернизацией невероятную волю к развитию всей нации. Сегодня Сеул — это глобальный город-миллионник, где небоскрёбы 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е корпорации соседствуют с древними дворцами и буддийскими храмами.

Юлия Дин, к.и.н.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В Токио состоялся южнокорейско-японский саммит

23 августа в Токио состоялись переговоры президента РК Ли Чжэ Мёна и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Японии Сигэру Исибы. Они начались в двустороннем формате, а затем продолжились в расширенном составе, продолжаясь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около двух часов. Затем лидеры двух стран подвели итоги встречи и опубликовали совместное заявление для прессы. Как отметил южн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прошедший саммит знаменует собой возобновление челночной дипломатии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Состоялось подробное обсуждение основ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развития южнокорейско-японских отношений, ключевых мер практ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итуац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 основны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проблем. Участники саммита отметили необходимость совместного решения общих проблем, стоящих перед двумя странами, таких как низкая рождаемость, старение населения и концентрация населения в мегаполисах. Достигнута договорённость о создании меж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го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го органа для обмена политическим опытом и совместного поиска решений,- отметил Ли Чжэ Мён. Кроме того, подтверждена приверженность полной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и установлению прочного мира в регионе. Отмечено, чт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между РК и Японией, а также между РК, США и Японией имеет первостепенное значение в быстро меняющейся международной обстановке. В свою очередь,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Японии приветствовал начало челночной дипломатии, которое поможет проводить последовательную политику. Он отметил, что лидерам двух стран удалось провести плодотворный обмен мнениями по широкому кругу вопросов, договориться укреплять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связи в области экономики и безопасности. Сигэру Исиба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на то,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народы двух стран смогут объединить усилия и вместе идти к лучшему будущему. 24 августа президент РК встретился с японскими политическими деятелями, с которыми обсудил пути развития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Сеулом и Токио.

КНДР производит собственные смартфоны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обладает достаточным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м потенциалом для производства собственных смартфонов. Об этом пишет 22 августа газета «Чосон синбо», орган Чочхонрён, про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в Японии. Завод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смартфонов «Чиндаллэ» открыт в пхеньянском районе Мангёндэ в марте 2018 года. Он первоначально производил смартфоны, разработанные в Китае, а сейчас ежегодно выпускает «сотни тысяч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х и функциональных мобильных телефонов». Чистота воздуха на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площадках соответствует международным стандартам,- пояснил «Чосон синбо».

КНДР продолжает принимать российских туристов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родолжает принимать российских граждан в туристическом комплексе Вонсан-Кальма, на восточном побережье, несмотря на временный запрет на въезд туда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22 августа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РК.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открыла прибрежную туристическую зону Вонсан-Кальма 1 июля, но уже 18 июля внезапно прекратила приём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без объяснения причин. Между тем, групповые туры для российских граждан по-прежнему доступны. Программа включает посещение Пхеньяна, туристической зоны Вонсан-Кальма и гор Мёхьянсан в провинции Пхёнан-Пукто.

СМИ США: K-Pop Demon Hunters - мировая сенсация

Анимационный фильм Netflix под названием K-Pop Demon Hunters (Кейпоп-охотницы на демонов) стал мировой сенсацией. 21 августа влиятельные американские СМИ, такие как CNN и журнал Time, сообщили о большом интересе к фильму во всём мире. Газеты USA Today и Gold Derby отметили растущую популярность фильма в США, благодаря его необычности и высокому качеству. Журнал Time в статье под названием «Как K-Pop Demon Hunters покорили мир» назвал его «главным хитом нынешнего лета» в мировой киноиндустрии. Анимационный фильм совместил множество преимуществ, являясь сочетанием комедии, боевика и мюзикла. Прошло более двух месяцев после выхода фильма, но его популярность не спадает,- пишет Time.

Госмузей Кореи обновил рекорд посещаемости

За период с 1 января по 25 август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музей Кореи посетили 4.189.822 человека.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узее, это больше числа посетителей за весь прошлый год, составившего 3.788.785 человек, и больше рекорда 2023 года (4.180.285 человек). С учётом текущей динамики ожидается, что впервые с момента основания музея в 1945 году посещаемость превысит пять миллионов человек. В июле музей принимал в среднем 24 тысячи посетителей в день.

RKI

Рамён объединил поколения: на Сахалине прошёл четвертый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23 августа, в суббот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 площадке перед ТЦ «Аллея» состоялся уже четвертый Фестиваль национальной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Рамён». Это яркое событие, главным организатором которого выступила Ассоциа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новь доказало, что любовь к вкусной еде и хорошей музыке способна объединить людей всех возрастов и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Торжественное открытие началось с зажигательно-го ритма традиционных корейских барабанов в исполнении учащихся Детской школы искусств «Этнос». Собравшихся приветствовала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Ассоци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талья Ю, стоявшая у истоков создания фестиваля.

Почетным гостем фестиваля стал новый глав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канцеляри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господин Кук Чан Хён. В своей приветственной речи он отметил глубокую символичность праздника: «Рамён — это не просто блюдо, а теплые воспоминания, которые хранятся в сердце каждого корейца. Это особая еда, которая объединяет поколения и соединяет нас в одно целое. Сегодняшний фестиваль — это важное и значимое явление в культурной жизн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где вокруг лапши объединяется всё сообщество».

Организаторы подчеркнули, что в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й России особенно важно сохранять свою культурную идентичность, язык и традиции, а такие фестивали помогают народам лучше узнавать и уважать друг друга.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самом начале праздника пошел дождь, он не смог нарушить атмосферу единства и веселья. Гости не расходились, а юные скрипачи из Невельска, не прерывая программы, продолжали свои выступления под дождем, благодарные зрители щедро наградили их аплодисментами.

Эта стойкость лишь подчеркнула общий настрой фестиваля.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го дня гостей праздника ждала насыщ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Свои таланты 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учащиеся корей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ДШИ «Этнос»,



исполнившие как традиционные танцы, так и современную К-поп хореографию. Яркими номерами также порадовали коллектив киргизского танца «Ак Элечек» и к-поп группа «EFENTY» с зажигательными танцами.

Не остались без внимания и спортивные достижения: зрелищные показательные выступления представили спортсмены клуба тхэквондо «Олимп». Самые смелые и сильные гости могли померяться силами в конкурсах на поднятие мешка риса и на скорость поедания самого острого рамёна.

Но, конечно, главным героем дня стала лапша. В этом году был установлен настоящий рекорд: организаторы бесплатно раздали более 1450 порций ароматного рамёна! Помимо этого, все желающие могли попробовать различные корейские уличные закуски.

Четвертый фестиваль «Рамён»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стал местом настоящего единения. Он собрал тысячи гостей — детей, молодежь и людей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други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Праздник вышел далеко за рамки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ого события, превратившись в важную ступеньку для развития еще более сплоченного и гармонич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на Сахалинской земле.

Виктория Бя

Главы РК и США обсудили вопросы мир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25 августа в Белом доме состоялась первая личная встреча президентов РК и США — Ли Чжэ Мёна и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Сначала лидеры двух стран провели в Овальном кабинете переговоры в двустороннем формате, которые транслировались в прямом эфире, после чего они перешли в зал заседаний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где продолжили беседу в расширенном составе. Южн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на то, что президент США откроет новый путь к стабиль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 качестве «миротворца». В свою очередь, президент США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на встречу с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лидером уже в этом году, подтвердив тем самым своё желание возобновить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 Ким Чен Ыном. Ли Чжэ Мён отметил, что ситуация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была стабильной во время первого президентского срока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но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она ухудшилась, поскольку Пхеньян расширил свои ядерные и ракетные программы. «Если вы возьмёте на себя роль «миротворца», я приложу все усилия, чтобы поддержать вас»,- отметил президент РК. В ходе южн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ого саммита обсуждались также вопросы «модернизации альянса» и двусторонней торговли. Ли Чжэ Мён выразил, в частности, надежду н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Вашингтоном в деле возрождения американского судостроения и промышл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Трамп заявил, что США планируют закупать суда у РК, а также вместе строить их на верфях на американской территории. Он упомянул также текущие переговоры о совместном энергетическом проекте на Аляске с участием РК и Японии, а также о возможных закупках Сеулом американской военной техники, включая бомбардировщики B-2. KBS World

По итогам саммита РК-США подписано 11 MOU

В рамках «Делового круглого стола РК-США», который состоялся 25 августа в Вашингтоне после саммита лидеров двух стран, подписано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11 меморандумов о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и (MOU).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торговли и энергетики РК, они касаютс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сферах судостроения, атомной энергетики, авиации, закупок сжиженного природного газа и добычи критически важных минералов. В «Деловом круглом столе» участвовали руководители 16 южнокорейских и 21 американской компании, а

также министр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торговли и энергетики РК Ким Чжон Гван и министр торговли США Говард Лютник. Заключены, в частности, шесть меморандумов о создании совместных фондов, инвестициях 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для расширения кооперации в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отраслях. Участие ведущих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в укреплении судостроитель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США, а также в обслуживании и ремонте американских военных кораблей усилит взаимовыгод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заявил Ким Чжон Гван. KBS World

30-й Пусанский кинофестиваль пройдёт с 17 по 26 сентября

30-й Пусанс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инофестиваль пройдёт с 17 по 26 сентября.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оргкомитете фестиваля, отметив, что для участия в основном конкурсе отобран 241 фильм, что на 17 фильмов бол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Фестиваль откроет новый фильм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режиссёра Пак Чхан Ука «Ничего не подлаешь», а официальную церемонию открытия фестиваля проведёт Ли Бён Хон, исполнитель главной роли в этом фильме. Впервые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пройдёт отдельный конкурс азиатского кино. 14 фильмов будут бороться за награды в пяти номинациях: Гран-при, Лучший режиссёр, Специальный приз жюри, Лучший актёр/актриса и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вклад. Фильм, получивший Гран-при, будет показан на закрытии фестиваля. Пять южнокорейских фильмов выбраны для программы Korean Cinema Today, а в секции Vision будут показаны 23 независимых азиатских фильма как начинающих, так и опытных режиссёров. KBS World

Штурм укрепрайона на Камышовом перевале воссоздали на Сахалине по случаю 80-летия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В этом году 3 сентября в России отметят 80-летие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и Победы над милитаристской Японией. По случаю годовщины ключевых сражений в Холмском районе состоялась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ая реконструкция, посвященная штурму укрепрайона на Камышовом перевале. Участниками мероприятия стали десятки гостей и жителей муниципалитета.

Перед началом реконструкции состоялась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возложения цветов и венков к братской могиле советских воинов, павших во время сражения на перевале. Тогда ожесточенные бои завершились лишь к исходу дня. К гостям мероприятия обратился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Он отметил, что штурм стал одним из ключевых боев -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был освобожден юг Сахалина, а затем и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 80 лет назад Вторая мировая война завершилась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победой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и полной капитуляцией милитаристской Японии. Мы регулярно проводим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ие реконструкции, потому как это уникаль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коснуться к событиям августа 1945 года, когда наши войска совершили невероятный подвиг, порой имея меньшую численность, стремительно освобождая юг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Тогда победа Красной Армии на Камышовом перевале стала одной из ключевых битв в завершении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Мы говорим об исторической правде, и мы гордимся историей нашей страны, ее победами и героями, - отметил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 Здесь в августе 1945 года советские воины проявили мужество, стойкость и беззаветную преданность своей Родине,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показав всему миру силу нашего народа. Наш долг сохранить правду о войне, передать ее будущим поколениям, чтобы никто никогда не посмел переписать историю. Слава защитникам отечества, вечная память бессмертному подвигу, - сказал участник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капитан Евгений Скуратов.

Впервые реконструкция боя, где особое мужество в борьбе с японцами показали бойцы 113-й отдельной стрелковой бригады, состоялась в 2022 году. Тогда активные жители Холмского района обратились к главе муниципалитета с предложением воссоздать события военных лет и показать жителям, какой ценой удалось освободить юг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С тех пор событие приобрело ежегодный характер. В этом году для гостей также организовали большую культурную программу: мастер-классы, выставки, патриотический концерт, работа торговых рядов, раздача полевой каши и чая.

- Очень важно помнить подвиг советских бойцов, особенно сегодня, когда наши ребята продолжают защищать Родину и отстаивать интересы нашей страны в зоне проведения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Мы уже не первый год приезжаем на реконструкцию. Хотим передать детям чувство благодарности нашим предкам и собственным примером показать, что значит патриотизм и любовь к стране и ее истории, - поделилась гостя мероприятия Татьяна.

Отметим, увековечивание памяти подвига советских бойцов в освобождени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от милитаристской Японии ведется сразу по ряду направлений.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иск бойцов, павших во времена сражений, и установление их имен. Ведется работа по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боевой техники и других артефактов военных времен. В Смирныховском районе ежегодно проводится реконструкция штурма полицейского поста Хандаса. 18 августа на Шумшу, где прошли финальные бои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РФ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торжественно открылся первый этап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ого 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Тогда же состоялась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ая реконструкция высадки советского десанта на Шумшу и штурм укреплений. В мероприятия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около 150 человек из разных уголков страны, а также Беларуси и Китая.

Курсанты сахалинского филиала центра ВОИН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в первых Всероссийских военно-тактически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уть ВОИНа»

Всероссийские военно-тактические соревнования «Путь ВОИНа» организуются впервые по поручению полномоч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Президента РФ в ДФО, Председателя Наблюдательного совета Центра «ВОИН» Юрия Трутнева в целях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я системы подготовки и закрепления полученных курсантами Центра знаний на практике.

Отборочный этап соревнований пройдет с 29 по 31 августа в Волгоград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базе оборонно-спортивного лагеря «Авангард» при участии 250 курсантов Центра «ВОИН» из 21 региона, в том числе исторических. Финал, в который пройдут только четыре команды, пройдет в Якутии с 15 по 21 сентября.

- «Путь ВОИНа» – собственный большой проект Центра «ВОИН». Он организуется впервые и станет одним из самых крупных состязаний для наших курсантов. Важно, что программа построена таким образом, что развивает навык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и тактического мышления, и через спорт, через работу в командах ребята получают эти важные навыки, которые будут востребованы и в бу-

дущем, – 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 полномоч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зидента РФ в ДФО, Председатель Наблюдательного совета Центра «ВОИН» Юрий Трутнев.

- Через такие соревнования в молодежи формируется особый патриотический дух, закаляется характер. Здесь важны командная работа, лидерство, умение принимать решения в сложных ситуациях и брать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их исполнение. Уверен, что такие соревнования, будут интересны и полезны для нашего подрастающего поколения. Будем проводить их ежегодно,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командир Центра «ВОИН», Герой России и участник президентской программы «Время героев» Андраник Гаспарян.

В ходе отборочного этапа команды курсантов пройдут 9 испытаний – «Передвижение на поле боя» – скрытое выдвижение к объекту противника с переползанием, перебежками и метанием гранаты на точность, «Разминирование тропы», «Преодоление зараженного участка местности», «Стрельба из пневматической винтовки по мишени», «Полоса препятствий “Тропа ВОИНа”», «Разжигание костра», «Небесный штурм» – борьба дронами, «Воздушный лабиринт» – управление FPV-дронами, «Первая помощь и эвакуация раненого».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соревнования курсанты встретятся с Героями России, участниками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олимпийскими чемпионами и другими выдающимися спортсменами. Будет организовано посещение знаковых мест Сталинградской земли, хранящие память о подвиге советского народа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Мемориальный комплекс «Героям Сталинградской битвы на Мамаевом Кургане», Музей-панорама «Сталинградская битва»,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в митинге на Площади Героев, возложении цветов в Зале Воинской Славы.

Центр «ВОИН» создан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Филиалы Центра работают в 21 регионе страны.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егиональные подразделения открыты в Хабаровском крае, Республике Буря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амчатском крае, Республике Саха (Якутия). Филиалы «ВОИНА» объединяют около 400 инструкторов, в том числе специалистов Федерации боевого снайпинга России, многие из которых являются участниками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Они проводят занятия с молодежью в возрасте от 14 лет по таким дисциплинам, как огневая, инженерная и тактическая подготовка, организация связи, основы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пилотирование БПЛА, основы тактической медицины, военно-спортивные игры. За два года обучено по раз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более 55 тыс. курсантов.

39 сахалинских детей получили помощь за время работы фонда «Круг добра»

С визитом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прибыл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ления Фонда «Круг добра», протоиерей Александр Ткаченко.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была создана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 Путина для поддержки детей с тяжелыми жизнеугрожающими и хронически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требующими особого подхода и дорогостоящего лечения. За 4 года благодаря деятельности Фонда сахалинским детям была оказана помощь на 1,5 млрд рублей. В ходе встречи с островными врачами и родителями обсуждались пути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и создания механизмов для наиболее успешной и оперативной помощи.

Ангелина Кулинич – 16-летняя островитянка, красивая девушка, школьница,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11 класса готовится связать свою жизнь с IT-технологиями. Даже наличие серьезного диагноза не мешает ей идти к своей цели. Хотя в совсем юном возрасте речь шла о том, чтобы выжить – приступы удушья были смертельной угрозой, а лечение от муковисцидоза требует колоссальных затрат.

- За 30-летнюю историю наблюдений дети с таким диагнозом жили до 4-6 лет. Современная генная терапия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ноценной жизни, ребенок учится, активно живет, развивается, как и сверстники. Для обычной семьи затраты на лечение были бы неподъемны. Но государство заботится о таких детях. Мы живем в удивительное время – видим, как человек с неизлечимой болезнью радуется жизни, может заниматься созидательным трудом. Фонд «Круг добра» дал тысячам детей и их семьям счастье жить, - рассказала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лечебного департамента Ирина Хегай.

Стоимость курса лечения муковисцидоза на один месяц – 850 тысяч рублей. Перечень заболеваний, при которых помогает Фонд, насчитывает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ков наименований. Самые большие группы подопечных Фонда – дети с муковисцидозом, хроническим гепатитом С, СМА, миодистрофией Дюшенна, туберозным склерозом, ахондроплазией, буллезным эпидермолизом, нейробробастомой, синдромом короткой кишки. Лечение некоторых из них обходится в десятки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в год. Как, например, поддержка пациентов при спинально-мышечной атрофии. Самому маленькому ребенку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этот диагноз был установлен при рождении. Такая оперативность стала возможной благодаря расширенному неонатальному скринингу на 41 заболевание, которое внедрено в практику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Продолжительная и активная жизнь». Все клин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малыша были в норме, но генн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показало патологию, которая затем подтвердилась в двух федеральных центрах. Сейчас ребенок получает терапию. Благодаря вовремя начатому лечению удастся сдерживать развитие болезни.

- В 2023 году решением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Фонд получил право обеспечения подопечных до достижения ими 19-летнего возраста, чтобы дать возможность более плавного их перевода во взрослую систему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То, что дорого, сложно, не по силам родителям, – к таким детям приходит Фонд. Вопрос лечения каждого конкретного ребенка решается в тесном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с системой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 регионе,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ления Фонда «Круг добра», протоиерей Александр Ткаченко.

К 1 августа 2025 года количество подопечных Фонда по всей стране составило 29 532 детей. На Сахалине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на попечении организации находятся 24 ребенка. Благодаря деятельности «Круга добра» Россия вышла на одно из лидирующих мест в мире в обеспечении терапией детей с тяжелыми и редки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Как только в мире появляется новое лекарство от орфанного заболевания с доказанной эффективностью и безопасностью, оно может стать доступным для российских детей.

Центр «Острова» запустил программу повышения квалификации для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у развитию молодёжи

В центр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Острова» — проект от Росмолодёжь, открылась образова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для молод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у развитию. Обучение проходит в онлайн-формате.

«Проводники карьеры. Управление траекториям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 это первая образова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центра «Острова». Сегодня более 80 участников из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 сотрудники центров карьеры университетов и колледжей, карьерные консультанты, специалисты п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у развитию молод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на предприятиях — приступают к освоению теоретического материала, а впоследствии на практике будут помогать молодым людям выбирать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путь. По завершении программы участники получат удостоверение о повышении квалификации. Событие проводится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Молодёжь и дети».

- 21 августа состоялась установочная сессия с будущими проводниками, где мы вместе с программным директором Центра «Острова» Константином Афониним определили ключевые цели и задачи проекта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Наш курс нацелен не только на обучение и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инструментов для выстраивания системы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молодёжи, но и на создание актив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проводников карьеры по всей России. Участники из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 предприятий смогут обмениваться передовым опытом, развивать эффективн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и выстраивать плодотвор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 рассказывает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Острова» Валерия Шайхвалиева.

Основная цель программы — развити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компетенций в области управления карьерными траекториями студентов, выпускников и молод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которые в скором времени выйдут на работу или уже трудятся в компаниях. Участники в дальнейшем становятся проводниками, которые сопровождают молодых людей на определенном этапе. Им предстоит освоить теорию, практические навыки и пройти аттестацию. Каждый модуль сопровождается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й работой, домашними заданиями и итоговым тестированием.

- «Проводники карьеры» в рамках сопровождения смогут диагностировать и определять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цели, разрабатывать индивидуальные карьерные траектории, проводить подбор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и развивающих ресурсов, содействовать в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е и адаптации на предприятиях, мотивировать и поддерживать на пути развития. «Проводник» — это связующее звено между молодёжью и работодателям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он становится ключевым звеном в систем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становления молодых людей, обеспечивая комплексное сопровождение и поддержку на всех этапах выбора и построения их карьерного пути, — добавляет программный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Острова» Константин Афонин.

Образова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разделена на два этапа. Вторым станет программа «Проводники карьеры. Управление траекториям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Обучение состоится очн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период проведения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молодёжного форума «Острова» платформы Росмолодёжь. Форумы.

Напомним, Центр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Острова» проведёт десять программ в разных субъектах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ни пройдут в Москве, Ивановской области, Липецке,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 ряде других городов. Для этого разработан план мероприятий, который будет реализован при поддержке Росмолодёжи». Все программы завершатся до конца года.

Центр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Острова» открыл свои двери благодаря участию во Всероссийском конкурсе по созданию круглогодичных центров компетенций по приоритет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реализации молодёжной политики среди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его итогам было определено 12 регионов-победителей, куда вошла 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Главным направлением центра являетс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молодёжи.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민주평통, '재외동포 4천명' 자문위원 위촉 추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사무처장 방응승)가 새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건의와 국내외 지지기반 확충에 나설 제22기 자문위원 위촉을 추진한다고 8월 25일 밝혔다.

사무처는 지난 22일 지방자치단체장, 정당 대표, 국회의원, 주무관청의 장, 재외공관장 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과 동 법 시행령에 규정된 법정 추천기관에 제22기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

제22기 자문회의는 국내외 2만2000명 내외 규모이고, 지역대표인 지방의회 의원 3500명과 직능대표 1만4500명(이상 국내 1만8000명), 재외동포대표 4000명 내외로 구성한다.

이번 자문위원 위촉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국민주권정부의 자문기구로 탈바꿈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사무처는 설명했다. 특히 공약과제인 대북·통일정책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숙의·공론화 역량을 갖춘 인사를 적극 발굴·영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역, 세대, 계층을 아우르는 균형 위촉을 통해 국민 각계각층의 통일여론을 가감 없이 수렴할 수 있도록 인적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통일논의의 미래성과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년 자문위원의 비율을 30%(약 5500여명, 45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청년 자문위원 참여 공모' 인원을 500명 늘어난 1500명으로 증원한다. 세대별 균형을 위해 교육청, 학교, 대학, 청년단체 등과 협조해 18세~20대

청년층의 참여도 확대한다.

여성의 위촉 비율 또한 40% 수준으로 상향 설정하고, 지역협의회 최소 인원도 40명에서 50명으로 확대 배정한다.

해외의 경우, 자문위원 추천절차의 개방성과 민주성을 제고한다. 10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재외공관에서는 '해외자문위원추천위원회'(외부인사 포함)를 필수적으로 운영해 전체 배정인원의 84%(2600여 명) 상당을 추천한다.

특히 한인계 정치인, 세계적인 한인 석학, 한상 기업인, 동포 차세대 등 글로벌 코리아 리더의 위촉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모 참여는 온라인(peace.puac.go.kr/ccis)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활동 계획, 활동력 등을 심사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해 위촉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사무처는 9월 중순까지 추천기관으로부터 자문위원 후보자를 접수하고, 10월 중 자문위원 위촉을 마무리한다. 제22기 출범일은 오는 11월 1일 예정이며, 새로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이다.

지난 2023년 9월 위촉된 2만 1000여명의 자문위원은 이달 31일 임기를 마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4일 취임한 방응승 신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6·15공동선언실천 전북본부 상임대표, 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상임이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전북평화회의 상임대표 등을 지낸 통일운동 활동가다.

(재외동포신문)

카자흐와 고려인의 협연, '감동'으로 피어나다

주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이하 문화원, 원장 구분철)은 8월 23일 오후 6시, 아스타나에 위치한 카자흐스탄 콘서트홀에서 '대한민국 광복 80주년 기념 클래식 콘서트'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아 문화원과 카자흐스탄 국립 예술기관인 카자 콘서트가 공동 주최한 이번 공연에는 카자흐스탄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고려인 피아니스트 스타니스라브 헤가이가 협연하여 무대를 빛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의 문화적 연결 고리를 조명하고, 고려인 예술인의 의미있는 발자취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였다.

지휘는 카자흐스탄 공훈 예술가이자 카자흐스탄 국립예술대학교 교수인 바흐잔 무사호자예바가 맡았으며, 피아노 협연에는 카자흐스탄 출신의 고려인 연주자 스타니스라브 헤가이가 참여했다. 헤가이는 2014년 제14회 브레멘 유럽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 등 세계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은 연주자다.

공연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 서곡으로 시작해 고려인 작곡가 '정주'의 《한국의 춤》, 《검은 건반의 연주》, 《두 친구》의 아름다운 선율이 해

가이의 손끝에서 울려 퍼졌다. 마지막 무대는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제1번 다장조, Op. 15로 장식되어 관객들에게 역사와 감동이 어우러진 깊은 울림을 전했다.

한편, 작곡가 정주는 1923년 대한민국 광주에서 태어나 일본 도쿄에서 작곡을 공부한 후, 평양에서 음악 교사로 재직하다 1950년대 카자흐스탄으로 망명하였다. 이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지에서 활동하며 고려인 민요 수집, 민족 음악 창작, 작곡 교육 등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을 이어갔다. 2002년 김대중 정부로부터 동백장을 수훈했으며, 2013년 알마티에서 타계하였다.

구분철 원장은 “광복 8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아 카자흐스탄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고려인 피아니스트의 감동적인 협연을 통해 광복의 의미와 역사를 예술로 기념하고자 했다.”며, “이번 공연이 단순한 음악회를 넘어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 간의 문화적 공감과 우호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신문)

[우리말로 깨닫다]

한국어의 순수성을 논한다는 것

우리는 한국어 어휘를 분류할 때 대개 세 가지로 나눕니다.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가 그것입니다. 한자어도 외래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한자어는 역사적으로 오래되었기에 외래어와는 분리하여 나눕니다. 한편 한자어가 우리말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한자어를 70% 이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주 쓰는 우리말을 보면 한자어의 비율은 훨씬 낮아집니다. 아무래도 한자는 개념어, 문명어 등에 더 많이 쓰이고, 그 고유어는 생활어에 많습니다.

우리가 기초어휘라고 말하는 어휘들은 순우리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한 언어의 골격을 이루는 말이기 때문에 고유어이고 기초어휘라고 하는 겁니다. 기초어휘에 속하는 말로는 우선 자연어가 있습니다. 하늘, 땅, 해, 달, 별, 눈, 비, 바람 등의 어휘가 여기에 속합니다. 하지만 금방 눈치를 채셨겠지만, 산(山)이나 강(江)과 같은 말은 한자어입니다. 기초어휘에도 한자어, 외래어는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왜, 산과 강은 한자어를 쓰게 되었을까요? 원래 산은 '뫼', 강은 '가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메아리, 두메 같은 말에 남았습니다. 산이나 강이 한자어로 바뀐 이유로 저는 지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자어로 지명이 바뀌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자연어가 산과 강이었을 겁니다. 지명에 산과 강이 쓰이면서 자연스럽게 독립적으로도 쓰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을 나타내는 말도 기초어휘입니다. 인칭어는 순우리말의 보물창고인 셈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언니, 오빠, 누나,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아줌마 등 순우리말이 한가득입니다. 나, 너, 누, 남, 늬, 님 같은 말도 순우리말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눈치를 챘겠지만 형(兄)이나 동생(同生), 삼촌(三寸), 이모(姨母), 고모(姑母) 등은 한자어입니다. 이 중에서 형, 동생, 삼촌은 특이한 어휘입니다.

우선 형은 남자 간에 쓰는 말처럼 보이지만, 여성끼리도 형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남편 형의 아내를 부를 때는

언니라고 하지 않고, 형님이라고 합니다. 동생은 더 특이합니다. 원래 동생은 같은 엄마가 낳은 형제, 자매입니다. 즉 위아래의 개념이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손아래의 형제, 자매, 남매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동생은 성별이 없습니다. 굳이 성을 나누려면, 여동생, 남동생처럼 구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냥 동생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촌은 더 특이합니다. 촌수는 친척간의 거리를 표시하는 말인데, 친족어로 굳어졌습니다. 촌수는 원래 '거리'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말입니다. 1촌, 2촌은 부모와 자식, 형제 간을 의미하기에 촌수 자체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삼촌은 남자에게만 쓰는 어휘라는 점도 특이합니다. 여자는 고모, 이모라고 하지 삼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제주도에서 여자에게 삼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어색하지만 재미있습니다. '형, 동생, 삼촌' 등은 모두 한자어이지만, 한국어에서 의미가 변형된 한국어 어휘입니다.

우리말의 어휘는 순수한 고유어로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살펴보면 기초어휘 속에도 한자어 등 외래어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말 순수한 우리말이 있는지, 언어접촉의 관점에서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는 다른 언어와의 접촉을 통해서 변화해 갑니다. 때로는 아예 외래의 말로 바뀌기도 하고, 뜻이 변한 채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산과 강 그리고 형, 동생, 삼촌이 보여주는 어휘의 세상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언어의 순수성을 논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Сахалинцы выступили на Красной площади

В конце лета Красная площадь превратилась в настоящую музыкальную площадку фестиваля детских духовых оркестров «Спасская башня детям».

Сахалинский детский духовой оркестр «Браво», основанный на базе Центральной детской музыкальной школы горо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дирижёра Даниила Пак и Сводный ансамбль корейских удар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ДШИ "Этнос"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Юлии Син, достойно представили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на Фестивале детских духовых оркестров «Спасская башня детям». Ребятам не помешал даже проливной дождь!

«Горжусь каждым артистом! Выдержкой,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ом, настойчивостью. К мечте выступить на Красной площади мы шли три года. Наш большой коллектив являетс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учебно-творческой лабораторией под эгидой ДКиТ. Всё лето мы трудились, готовили программу во время творческой смены «Аллаид». Дети гордятся своей Родиной – Большой и Малой. Хотят видеть её могучей и процветающей. И что могут – делают уже сейчас!» - рассказывает руководитель оркестра Даниил Пак.

Программа выступления была насыщенной и разнообразной, её уникальность состояла в гармоничном сочетании классического репертуара духового оркестра с элементами национальных традиций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реди произведений прозвучали знаменитая песня Александры Пахмутовой «Богатырская сила», проникнутая уважением к русской истории, теплая и искренняя "Ну что тебе сказать про Сахалин" Яна Френкеля. Взрыв аплодисментов вызвала авторская композиция Юлии Син "Street of Drums", наполненная яркими ритмами корейских барабанов и лиричностью тхэпёнсо. В этот мо-



мент казалось, что расстояние между Сахалином и Москвой стирается, и все зрители становятся частью одной большой музыкальной семьи.

«Что бросалось в глаза сразу: ребята не просто исполняли репертуар, они презентовали свою территорию — не населённый пункт на карте, а область, которая близка им настолько, что это неразрывно связано с их творческим самовыражением. Сахалин, конечно, удивил!» - поделился Михаил Матвеевко житель Москвы.

В составе сахалинской делегации учащиеся и преподаватели Центральной детской музыкальной школы, ДШИ «Этнос», Детской школы искусств №1, школ искусств г. Анивы, Долинска, Поронайска, с. Стародубского, артисты Сахалинской филармонии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симфонического оркестра.

(Материал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은화의 앞면은 러시아 연방 국장과 가격이 새겨져 있고, 뒷면은 러시아의 교각과 새, '동방경제포럼' 글자를 상징으로 새겨 넣었으며, 레이저 부조기법으로 검은 하늘과 파도 배경에 로마숫자 X(10)를 새겼다.

제 10회 동방경제포럼은 블라디보스토크 극동대학 캠퍼스에서 9월3일 부터 9월 6일까지 개최되고, 2025년 포럼의 주요 주제는 <극동 - 평화와 번영을 명분으로 하는 협력>이다.

포럼은 로스콩그레스재단이 주최한다.

Памятную монету выпустили к юбилею ВЭФ

Банк России выпустил в обращение серебряную монету номиналом 3 рубля.

В понедельник, 25 августа, к 10-летию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выпустили три тысячи особенных монет. Изделия выполняют в технике лазерного матирования,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Центрального банка.

На лицевой стороне монеты изображены герб РФ и номинал. На оборотной - рельефы Русского моста, птицы и эмблемы с надписью «Восточны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форум». Рядом изображена римская цифра десять, на фоне в технике лазерного матирования воссоздали черное небо и волны.

Напомним, что десятый Восточны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форум проведут 3–6 сентябр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ампуса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Главная тема в 2025 году —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о имя мира и процветания». Организатором мероприятия выступил Фонд Росконгресс.

Сахалин 주민들, 사기꾼들에게

약 3백만 루블리 피해 입어

Сахалин 지역의 3명의 주민들이 사기꾼들의 다양한 수법에 속아 총 2,847,600루블리의 피해를 입었다. 자세한 내용은 사

할린 주내무국 보도부에서 전해졌다.

사기 피해자 중 한 명은 스미르니흐 지역의 49세 주민으로, 인터넷에서 본 광고에 속아 링크를 통해 개인 정보를 입력한 후 낯선 사람으로부터 투자 권유 전화를 받았다. 그는 157,500루블리를 사기꾼들에게 송금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사는 78세 여성은 가짜 직원의 압박을 받았다. 가짜 상수도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계량기 점검"을 위해 SMS 코드를 알려줬다. 이후 가짜 은행 직원이 전화를 걸어 "안전한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라고 요구했다. 피해자는 총 700,000루블리를 송금했다. 그는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대출을 제안한 후에야 사기임을 깨달았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홈스크의 66세 여성은 거의 200만 루블리(199만 루블)의 피해를 입었다. 이 피해자는 정체 불명의 여성 메신저에서 연금 재계산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은 후 사기꾼들의 다단계 계획에 빠졌다. 그는 피해자에게 그녀의 개인 사무실이 해킹 당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 대화 후에, 러시아 내무부 직원으로 신분을 속인 사기꾼이 사기꾼들을 체포하는 데 도움을 달라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이 신원미상의 사람을 믿었고, "러시아 내무부 공무원"이 명령한 대로, 100만 루블리를 인출하고 은행 기기를 통해 99만 루블리를 사기꾼들에게 송금했다. 다음날, 그녀는 은행 피싱 앱을 통해 다시 백만 루블리를 송금했다. 그리고 또 다른 날, 또 가짜 직원이 피해자에게 다른 은행에서 나머지 자금을 인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메신저에서 통화기록이 삭제된 것을 발견하여 사기 피해를 입은 것을 깨닫고 추가 1,800,000루블 송금을 막을 수 있었다.

Сахалинцы отдали мошенникам практически 3 млн рублей

Трое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пались на ловушки мошенников и лишились своих накоплений по различным, но уже известным уловкам. В общем островитяне лишились 2 847 600 рублей. Подробности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УМВД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

ской области.

Так, одним из жертвой мошенников стал 49-летний житель Смирныховского района, который увидел в интернете рекламу о якобы полагающейся выплате. Когда мужчина перешел по ссылке и заполнил личные данные, ему позвонил неизвестный с предложением инвестировать свои деньги. Сахалинец поверил и перевел 157 500 рублей мошенникам.

Под давлением лже-сотрудников оказалась 78-летняя жительниц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оторой позвонил якобы сотрудник «Водоканала» и потребовал сообщить код из СМС для «проверки счетчиков». Вскоре пенсионерке позвонил лже-сотрудник банка и предупредил ее о «мошенниках», рассказав, что теперь ей необходимо перевести все свои сбережения на «безопасный счет». Женщина поверила аферистам и перевела им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700 тысяч рублей. Когда неизвестные предложили ей взять еще и кредит, сахалинка поняла, что общается с мошенниками.

Больше всех пострадала 66-летняя жительница Холмска, которая потеряла почти два миллиона --- 1 990 000 рублей. Женщина попала в многоэтапную схему аферистов, которая началась со звонка в мессенджере от неизвестной девушки, рассказавшей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ерерасчета пенсии. Для этого сахалинке надо было назвать код, якобы с портала «Госуслуг». Следом женщине позвонил мужчина и представился сотрудником «Госуслуг». Он сообщил местной жительнице, что ее личный кабинет взломан. Кроме того, после этого разговора, с островитянкой по видеосвязи связался лже-сотрудник «ФСБ», который обратился к женщине за помощью в поимке аферистов. Она доверилась неизвестному и уже под диктовку «сотрудника ФСБ» сняла 1 миллион рублей и перевела через банковский терминал мошенникам 990 000 рублей.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женщина вновь перевела 1 миллион рублей через «фишинговое приложение банка». А еще через день лже-сотрудник потребовал снять остаток средств в другом банке, что сахалинка и сделала, но уже не успела перевести 1 800 000 рублей, так как увидела в мессенджере удаленные звонки и поняла, что стала жертвой мошенников.

(Сахалин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одписка на 2-ое полугодие 2025 год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15 руб. 49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РАССРОЧКА

Реклама

Березка 2

ул. Украинская

М²

Эконом

пр-т Мира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г(주필) 배 워토리야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
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